

수사관의 수사요소 중요도 인식이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신 상 화

경찰대학 경찰학과

윤 상 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프로파일링은 국내 범죄심리학의 대표적인 활용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찰청 프로파일러는 확고한 직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인지도와 비교하면 정작 경찰 내부에서의 인식이나 활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력사건 발생 시 프로파일러에게 프로파일링을 요청하고 활용하는 수사관의 인식을 파악하여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사관들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가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에 미치는 관계를 경로모형을 통해 검증했다. 경찰 수사관 3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사관의 수사요소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규범적 수사(증거 수집과 법적 판단 등)와 사실적 수사(범죄자 분석, 범죄정보 시스템 분석 등) 중요도의 2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중 사실적 수사 중요도가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를 매개하여 활용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범적 수사 중요도의 경우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사관이 자신의 주 업무 영역인 수사에 대해 가지는 인식이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프로파일링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프로파일링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프로파일링, 수사관, 범죄수사 요소, 중요도 인식, 태도, 활용 의도, 경로분석

* 이 논문은 2020년 교신저자의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과제 “범죄분석요원 업무분석 및 효율화 방안”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수행된 연구임.

† 교신저자: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충남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E-mail: focusone@police.go.kr

수십 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국내 최대 미제사건 ‘화성 연쇄 살인사건’, 이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프로파일러가 큰 주목을 받았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상을 깨고 용의자 이춘재가 연쇄살인 혐의에 대해 자백을 했고, 여기에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한 여성 프로파일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형원, 2019.10.2.). 이 사건 이전에도 프로파일러들은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등 연쇄살인 사건의 해결을 지원하여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최근 검경 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 단계 수사 완결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등 수사환경의 변화 역시 경찰 수사의 고도화가 절실한 이유가 되고 있다. 프로파일링은 사건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에 한층 더 다가감으로써 유무죄 판단을 도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범죄의 정황을 살핌으로써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프로파일링을 활용한 심층적 수사를 통해 사건 해결은 물론, 사건 및 피의자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국내 경찰의 프로파일링을 담당하는 범죄분석 조직은 미국 FBI의 행동분석팀(BAU)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2003년 신설, 시범 운영된 이후 강력사건 수사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수사를 지원해왔다(윤상연, 2020). 부서 신설 이후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현재에는 그 경험이 축적되어 심리·통계적인 측면에서 수사를 지원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로파일러가 작성한 보고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유죄 판결의 근거로 인용되는 등 범죄분석의 타당성이 법정에서 인정받기도 했다(신상화,

이동희, 2020). 외부 인지도 역시 매우 높은 상황으로, 경찰의 브랜드 가치를 대표하는 직무로 인정받고 있다¹⁾.

그러나 프로파일러가 현재의 인지도를 얻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조직 운영 초기 심리학 등 관련 학위 전공자들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일반직의 중간 형태의 어중간한 정체감, 이론과 현장의 요구 간에 괴리가 상당하여 현장에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윤상연, 2020). 조직 내부에서는 여전히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며, 프로파일링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존재한다. 프로파일링은 특히 다른 과학수사 기법과 달리 수사관의 수사 활동과 차별화된 배타적 수사기법이라는 인식이 약하여 프로파일링의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수사관이 지원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로파일링은 여전히 ‘선택적’, 수사 ‘지원’ 업무에 그치고 있으며, 연쇄·광역 범죄에 특화된 미국식 수사기법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국토가 작고 단발성 범죄가 대부분인 국내 여건상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에 의구심이 존재한다(이진숙 등, 2020).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강력사건에 한정하더라도 프로파일러들이 개입하는 사건은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프로파일링은 용의자 검거 전 단계의 경우 비전형적 사건이 발생했거나, 범행동기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된다. 구속 수사의 경우에도 진술, 태도 등이 모호하거나 피의자

1) 산업정책연구원. (2019). 경찰의 주요활동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경찰청 용역과제 보고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의 브랜드 가치 중 과학수사가 1위이고, 특히 ‘프로파일러’가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 심리상태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들에 국한하여 실시된다(신상화, 이동희, 202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프로파일링 이용상태와 관련하여 특히 프로파일러 지원 필요성 및 판단 결정이 범죄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프로파일링에 대한 잠재적 수요자로서 수사관의 관점에서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파일링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였다.

프로파일링의 개념 및 유용성 평가

Bartol과 Bartol(2018)은 프로파일링(profiling)을 “다양한 수사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추정하는 기법”이라고 정의하였다²⁾. 이처럼 프로파일링 기법은 미확인 용의자 추정에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용의자나 피의자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동 패턴, 사고 형태, 정서적 특징들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수사 상황과 목적에 따라 범죄현장 프로파일링³⁾, 지리적 프로파일링, 용의자 기반 프로파일링,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모호한 사망 분석⁴⁾ 등 크게 5가지 하위 유형

- 2) 경찰 내에서는 범죄분석 및 범죄분석요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쉬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프로파일링 및 프로파일러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 3) 범죄현장 프로파일링(crime scene profiling)은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가해자 프로파일링(offender profiling), 범죄수사분석(criminal investigative analysis)으로 불리기도 한다.

으로 분류된다(Bartol & Bartol, 2018).

국내 수사 실무에서도 프로파일러들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송치까지 수사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수사관들을 지원하고 있다⁵⁾. 프로파일러 도입 이후 지금까지 경찰 내에서 활동하면서 그들에게 특화된 업무 영역을 발전시켜 왔으며, 종합사건분석, 지리적 프로파일링, 진술분석, 자백획득, 신문전략, 피의자 면담, 심리부검 등으로 구체화하였다(이진숙 등, 2020).

프로파일링 실무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사건 발생을 전제로 하며, 사건이 인지된 이후 수사관의 요청 또는 사건을 인지한 프로파일러의 자발적 참여 요청과 사건담당자의 수락에 의해 프로파일링 업무가 시작된다. 업무 특성상 수사 진행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각 수사단계에 따라서 프로파일링 업무의 성격 역시 달라진다. 피의자 특정 전에는 범죄현장 대상 사건분석, 지리적 프로파일링, 용의자군 압축 등 범죄자의 추정을 위한 활동을 주로 한다. 피의자가 특정된 이후에는 사건 경위 파악 및 피의자 진술 분석 등을 통해 사건분석을 하거나 심리면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신상화, 이동희, 2020).

국내의 프로파일링은 용의자 특정에 우선

- 4) 모호한 사망 분석(equivocal death analysis)은 심리학적 부검 또는 심리 부검(psychological autopsy)으로 불리기도 한다.
- 5) 범죄분석 표준업무 처리지침에는 일반 절차(인력구성, 분석회의, 자료수집, 보고서 작성 및 검토, 결과 발표, 자료관리 및 활용) 및 주요 업무별 절차에 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발생사건 분석, 미제사건 분석, 진술분석, 신문전략지원, 범죄분석면담 등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범죄분석 표준업무 처리지침 4조].

비중을 두는 외국에서의 주요 활용 방식과 달리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깬 수사 방향 설정, 효과적 탐문·수색 방안, 피의자 성향을 이용한 신문전략 수립 등을 통해 긍정적 호응을 얻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권일용, 2019). 특히 프로파일러들이 대중적 관심이 높은 연쇄살인범 등을 면담하여 수사관과 대중이 범죄자와 사건을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함으로써 대중에게 그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프로파일링에 대한 유용성 평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가지는 프로파일링 결과와 실제 범인 등의 일치도를 비교하는 방식이고, 다른 한 가지는 프로파일링의 도움을 받은 수사관들의 주관적 평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경우 일치도는 발생 사건에서 실제 작성된 미확인 용의자 프로파일과 실제 검거된 범죄자와의 특성 유사도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수사관의 만족도는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면담, 진술분석, 심리평가가 실시된 후 프로파일러들의 분석결과가 수사과정에서 얼마나 유용했는지에 대한 수사관의 주관적 유용성 인식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프로파일링 결과의 유사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 즉 추정된 범인의 프로파일과 실제 범죄자가 유사하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Andrews, Bonta, & Wormith, 2006; Hanson & Morton-Bourgon, 2005). 반면 부정적인 결과, 즉 프로파일링 결과와 실제 범죄자의 유사도가 낮다는 주장도 제기된다(Bateman & Salfati, 2007). 프로파일링의 효과는 범죄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등(Bennell & Jones, 2005) 그 효과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프로파일링에 관한 국내 연구도 다수이지만(김용화, 2002; 신상화, 2009; 신상화, 김지호, 2012), 이는 실제 프로파일링 사례의 정확성을 검증한 연구라기보다 프로파일링의 기초가 되는 유형별 범죄(자)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프로파일링의 과학성, 증거로서의 가치에 관한 연구(신상화, 이동희, 2020; 최규환, 2018)나 과학적 근거(행동특성)에 기반을 둔 최신 프로파일링 기법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서종한, 김경일, 2011).

이처럼 국내의 경우 프로파일링의 유사도를 검증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프로파일링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검거 전후 용의자 프로파일의 정확도를 엄격하게 확인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고, 수사과정 투입 시점, 프로파일러에게 전달된 수사 정보의 양, 수사관의 협조 정도, 프로파일러 개인의 분석 관점이나 역량 차이 등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프로파일링의 효과를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결국, 국내 프로파일링의 효과성 연구는 수사관을 대상으로 프로파일링 수사 지원의 효과 및 유용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통해 효용성을 추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박지선, 최낙범, 2012; 이진숙 등, 2020; 정세종, 2014). 연구 조건을 기준으로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프로파일링 지원 경험이 있는 수사관에 한해 조사를 한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긍정 반응을 확인하였지만(이진숙 등, 2020), 경찰청 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지원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높은 수준의 긍정 반응 비율을 보이지는 않았다(신상화, 이동희, 2020).

이처럼 프로파일링에 대한 수사관의 평가와 인식에 관한 연구들은 연구 결과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프로파일링에 대한 단편적인 평가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프로파일링에 대한 수사관의 인식과 활용 의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범죄 수사요소와 수사관의 중요도 인식

범죄 발생 시 수사관은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현장 증거들의 수집, 특정인의 범죄혐의 여부 확인을 위한 탐문, 진술 청취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이후 수집된 정보, 증거자료에 대한 법률적 판단 및 평가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범죄행태 및 관련자 수사가 이루어진다. 즉, 법적 관점에서 수사는 인지된 범죄사실에 대해서 범죄자를 특정하고 법적 구성요건의 존재를 입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또는 “범죄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정의된다(김충남, 2008). 실제로 수사관들은 범죄행위의 법률적 구성요건을 발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기본 축으로 수사계획을 수립한다(박노섭, 이동희, 이운, 장윤식, 2020).

그러나 수사관들이 수사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밝혀진 범죄행위 요소 및 수집한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사건분석을 거쳐야 한다. 사건분석은 법적 절차 중심의 수사를 통해 충분한 범죄 증거가 확보되지

않거나 용의자 범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범죄행동 및 예상되는 범죄자의 특성을 추론하고, 범행동기를 추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여기에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개별적 사실 요소들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거친 후 범행동기, 용의자의 특성 등을 종합하는 과정이 포함된다(이동희, 손재영, 김재운, 2015). 이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수사의 필수적인 절차로 보기는 어렵지만, 범죄수사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의식적이든 아니든 수사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전말에 대한 이야기식 이해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Pennington & Hastie, 1992, 1993).

이처럼 수사는 증거의 수집 및 검토 후 법률적 요소에 적용시키는 과정, 그리고 범죄현장 및 행위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개념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에 근거한 탐문수사, 목격자 및 피해자 진술 등 수사기법을 통해 증거의 수집 및 평가 등 법적 절차 중심의 수사방식을 규범적(법률적) 수사로 정의하였다. 반대로, 범죄행위의 사실적 증명 즉, 범죄사실 파악을 위해 증거 및 정황을 종합, 사건을 재구성함으로써 범죄 발생의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하고, 범죄자의 책임을 평가하기 위한 수사방식을 사실적(분석적) 수사로 정의하였다.

규범적 수사와 사실적 수사는 개념적으로 구분이 되지만 현실에서 수사관들이 수사활동 과정에서는 엄밀하게 구분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범죄에 관한 규범적 해석과 사실의 발견은 결국 사건의 해결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상호 수렴하기 때문이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수사가 규범적 차원에서 정의되지만, 절차에 명시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사실적 이해는 필수적이다. 반대로

사실적 수사 역시 중국적으로는 법률적인 판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사방식(요소)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제한적인 조건의 수사 상황에서 수사의 준거가 되기도 하고, 수사방식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두 가지 수사방식은 수사관의 의식에서는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규범적 수사를 강조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수사관들이 사실적 수사를 명시적으로 강조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수사관들은 수사의 성공과 실패는 정확한 증거의 수집, 그리고 수집된 증거의 재판 활용 여부에 달려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교육을 받는다(박노섭, 이동희, 이윤, 장윤식, 2020). 법적인 요건들을 전제로 두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적용하는 연역적인 정보처리 과정으로서 수사에 집중하다 보면 사건에 대한 심리적·행동적 특성은 간과되고 추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수사의 주체인 수사관들은 사실적 수사 과정을 수사의 핵심에서 벗어난 지엽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정확성 여부를 떠나서 프로파일링을 비롯한 사실적 수사의 가치, 즉 유용성 평가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수사관들의 수사경험도 이러한 경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경우 강력범죄들은 범죄 발생과 함께 주변인의 신고 및 현행범으로 검거되기 때문에 사실적 수사를 고려할 필요성이 적다. 일부 사건들에서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증거수집에 실패하거나, 설령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형사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미해결된 사건으로 남는다(Dutelle & Becker, 2019). 이 때문에

수사관들은 사실적 수사 결과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규범적 수사 결과로 뒷받침될 때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적 수사를 법적 재구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권일용, 2019).

수사요소 중요도,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활용 의도 간의 관계

사건 재구성을 위해 수사관들은 필요한(규범적 또는 사실적) 수사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준거로 수사를 진행한다. 각 수사요소가 수사 업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즉 수사 활동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수사요소 중요도로 정의할 수 있다. 수사요소에 대한 중요도 인식 차이는 사실적 수사의 주요 기법인 프로파일링 및 프로파일러의 역할에 대한 태도 및 활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프로파일링은 사실적 수사방식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실적 수사의 중요도 인식이 프로파일링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공공정책, 전문 서비스, 제품 수용 의도 및 활용 행동을 예측하는 합리적 행위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을 개발한 Fishbein과 Ajzen의 설명모델(Ajzen & Fishbein, 1980; Fishbein & Ajzen, 1977)과 유사한 논리 구조를 가진다. 이 이론의 검증 모델에서는 개인의 신념, 태도, 의도와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검증하는 접근 방식을 취해왔다. 물론 개인의 욕구와 정서가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수용 행동과는 달리 범죄 수사는 범죄혐의 입증이라는 목표가 명확한 도구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일반 대중들과 달리 프

로파일링을 흥미나 재미로 인식하고 프로파일링을 통한 사건 해결을 단순한 개인적 성취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려는 과제 지향적 태도로 접근할 것이므로 태도와 행동의 일치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높을 것이다(Millar & Tesser, 1986). 따라서 수사관들의 프로파일링 지원 행위 또한 수사관 개인이 지닌 수사절차 및 수사 방법들에 대한 신념 즉 개별 수사요소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계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사관의 입장에서 프로파일링은 수사기법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특수한 수사방식인 만큼 프로파일링에 대한 수사관의 태도를 단일한 방향으로 예측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프로파일링 기법은 전통적인 범죄 수사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사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심리학, 범죄학, 통계학과 같은 사회과학적 지식과 수리과학적 방식이 적용된 전문 범죄수사분석(criminal investigative analysis) 기법이며(Petherick, 2014; Ochi, 2017; 최대호, 이주현, 이상경, 2018), 내용과 포섭 범위상 사실적 수사방식과 유사하다. 경험적인 학문을 높이 평가하는 판단자의 경우에는 프로파일링에 대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신뢰할 수 있지만, 수사를 규범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판단자의 경우에는 프로파일링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 있다.

수사관들은 수사업무 교육 과정에서부터 법적 절차, 그리고 증거수집과 같은 수사방식을 훈련받고, 업무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으므로(이관희, 김지은, 문성준, 2018), 규범적 수사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다. 수사관의 관점에서 수사는 결국 범죄 입증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이기 때문

에 규범적 수사요소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적 과정으로 인식되는 반면, 그 이외의 요소들은 부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된다. 규범적 수사를 중시한 나머지 사실적 수사방식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

한 연구에서 제시된 경찰관 출신 연구자들의 평가는 사실적 수사방식과 유사성이 높은 프로파일링에 대한 수사관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 중 범인 검거는 수사관의 역할이고, (수사관이 수집한) 증거에 의해 자백을 받는 것인 만큼 프로파일러의 역할은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수사 지원의 역할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박현호, 오경석, 2010). 즉, 현재의 수사 체계에서 프로파일링은 독자적인 수사절차가 아니라 수사를 지원하거나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규범적 수사에 초점을 둔 전형적인 형사 활동으로 수사의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수사관의 주관적 신념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계획적 행위 모델에서의 지각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Fiske & Taylor, 2010)의 수준과 유사한 특성으로 보인다. 즉, 해당 상황에 대한 통제 지각은 직접 수사 참여 인력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개입 및 지원 없이도 스스로 성공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과도 연결되며, 더 나아가 불필요한 외부 전문가의 개입이 자칫 수사 기밀의 유출이나,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규범적 수사방식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수사관의 경우, 이와 성격이 다른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

성이 있다. 반면 사실적 수사방식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우 유사성이 높은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역시 긍정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 관점에서 수사관이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수사에 활용할 의도, 그리고 실제 그 서비스를 받을지를 결정한 후 실제 활용하는 추구 행동을 적용하면, 수사에 대한 신념과 밀접히 연계된 태도는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Prislin & Oullette, 1996), 신념과 태도가 강력할 경우 더 적극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추구하는 행동이 나타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태도와 행동 의도의 관계는 의사결정 행동 연구들에서 꾸준히 검증되고 있으며, 조직 내 혁신 기법이나 서비스 수용 의도 및 수용자 행동 예측을 위한 연구들에 적용되고 있다(나은영, 1994; 유재현, 박철, 2010; 박종구, 2011).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도출하였다. 가설 1의 검증 을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가설 1. 수사요소 중요도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활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규범적 수사 중요도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와 활용 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분석적 수사 중요도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와 활용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는 수사요소 중요도와 활용 의도를 매개할 것이다.

추가로 태도, 의도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경험을 들 수 있다. 만약 특정 지식, 서비스, 주제 등에 대해 사전 경험을 지닌 경우, 특히 간접 경험이 아닌 개인의 체험을 토대로 한 적절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미 대상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지니고 있을 것이므로 경험에서 형성된 태도는 분명한 기억으로 인지되고 있을 것이다(Fazio & Zanna, 1981). 따라서, 수사관의 수사요소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무관하게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어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는 이 태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수사관 개인의 프로파일링 활용 경험 여부에 따라 태도, 활용 의도와 관계는 달라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에서는 프로파일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수사관은 그렇지 않은 수사관과 가설 1에서의 매개효과 경로모형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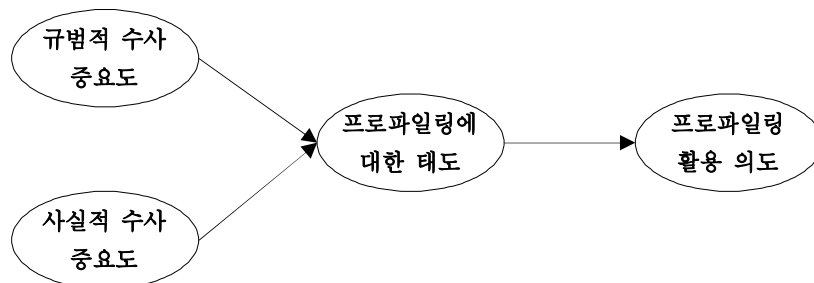


그림 1. 수사요소 중요도,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활용 의도와 의 관계 모형

가설 2. 수사관의 프로파일링 경험 여부에 따라 수사요소 중요도,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활용 의도 간 관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프로파일링 업무의 수요자이자, 지원요청의 결정자인 전국 경찰관서 소속 수사부서 근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청 인트라넷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수사부서 직원들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현 소속을 기준으로 프로파일링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경찰서 단위 형사과와 수사과의 수사 실무자, 그리고 여성청소년 수사관을 대상으로 총 2만 800명에게 메일을 보냈다. 비교적 짧은 7일간의 응답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응답한 340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했다. 설문지 발송과 조사 결과의 취합은 경찰청 조사전담 부서인 고객만족모니터센터의 전문가들이 전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참여한 수사관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90.9%(309명)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여성 9.1%, 31명). 연령대는 50대(41.5%), 30대(27.4%), 40대(25.6%) 순이었으며, 소속부서는 형사(49.3%)와 수사(48.2%)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고, 생활안전은 소수에 불과했다(2.4%). 계급은 다양하게 분포하였으며, 경위(41.2%), 경감(21.2%), 경사(18.2%), 경장(11.8%) 등이었다. 경찰 근무경력의 경우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29.4%,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22.4%, 30년 이상이 21.8%로 구성된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프로파일링 요청 경험에서 응답자 중 88명(25.9%)이 프로파일링 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고, 252명(74.1%)은 프로파일링 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수사요소 중요도,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활용 의도 등을 주요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 자체의 중요도 및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에 대한 객관화된 측정 도구들은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사례가 없으므로 경로분석을 통한 통합적 관계 검증을 위해 먼저 수사실무적 관점에서 범죄수사 및 경찰 관련 문헌 및 실무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사전 조사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 내적 신뢰도(Cronbach's α) 값을 고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구성개념별 최종문항을 선정했다.

수사요소 중요도

수사절차에 대한 대표성이 높은 관련 서적(이동희, 손재영, 김재운, 2016)으로부터 수사절차 상 수사요소와 방식을 빠짐없이 추출하였다. 수사절차 및 과정에 대한 중요도 문항들은 범죄사건 발생 시 초동조치, 임의수사, 강제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증거의 수집, 확인, 적용 절차에서의 법률, 절차 중심의 수사 활동 및 수사 방향 설정을 위한 사건분석 과정에서 실무적 수사 활동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수사 중요도는 10개 문항으로 '매우 중요하다'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의 5점 척도를 사용했다.

표 1. 조사문항 구성 및 내용

	구분	문항 내용
수사요소 중요도 (10문항)	증거수집	증거수집 및 탐문 / 사건 경위 파악
	증거확인	피의자 신문 / 피해자 및 참고인 면담
	증거적용	법적 판단
	데이터 분석	범죄 동향 분석 / 시스템 정보분석 /
	사건 분석	범죄자 특성 분석 / 범행 동기 파악 / 용의자 추정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9문항)	대중적 인식과 유사성	영화, 드라마와 유사 / 고도의 전문가
	대체 가능성	수사관의 충분한 이해 / 경찰관 대체 가능
	증거 가치	증거능력 보유 / 검증된 과학 / 과학적 절차 준수
	과학적 타당성	과학수사 기법 해당성
	결과의 정확성	정확한 결과 보장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1문항)		향후 프로파일링 지원 요청 의향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활용 의도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의 경우 선행연구와 전문가 인터뷰 결과 등을 근거로 총 10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여기에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의 유사성, 프로파일러의 대체 가능성, 증거가치, 과학적 타당성, 결과의 정확성 등을 포함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의 5점 척도,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는 ‘향후 프로파일링 기법 및 프로파일러 지원요청 의도’에 대해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최종문항 선정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수들은 형성척도(formative measures)이므로 내적 일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모델에서 제한한 구

성개념별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요인별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을 통해 최종문항 선정 및 요인구조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했다⁶⁾.

수사요소 중요도 10문항,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9문항 등 총 19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4개 요인구조로 나타났다. 이 중 ‘범죄분석 업무는 다른 경찰

6)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측정되지 않았던 수사실무적 구성개념이 사용됐다. 따라서, 개별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가 존재하지 않고, 구성개념의 하위 요인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내적 일관성이 결여된 문항들을 삭제하고,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성개념의 판별 타당성을 평가함으로써 경로모형에 투입되는 구성개념과 측정변수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우종필, 2012; 328-334).

인력이 대체 가능하다’는 문항이 별개의 요인으로 묶여 이 문항을 제거하고 요인분석을 재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통성이 .37로 요인 설명력이 낮은 ‘범죄분석은 과학적인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요인 적재값이 2개 요인 모두에서 높게 나온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효과적인 피해자, 참고인 면담이 필요하다’ 등 2개 문항을 추가로 제거하였다. 총 3문항을 제거한 후 16문항에 대해 반복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KMO 표본적합도

표 2. 수사요소 중요도,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 문항	공통성	요인		
		1	2	3
프로파일링은 검증된 과학이다	.746	.858	.038	.090
범죄분석을 통해 항상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677	.816	.108	-.007
범죄분석 요원들은 고도의 전문가 집단이다	.646	.795	.105	.054
범죄분석은 과학수사 기법이다	.627	.777	.122	.090
범죄분석 결과(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530	.719	.107	.047
영화나 드라마 속 프로파일러는 범죄분석 요원과 비슷하다	.517	.710	.084	-.081
수사부서 경찰관들은 범죄분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446	.627	.224	.048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범죄 동향 분석이 필요하다	.787	.233	.852	.086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시스템상 정보분석이 필요하다	.744	.216	.815	.183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범죄자 특성 파악이 필요하다	.740	.130	.780	.339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범행의 동기 파악이 필요하다	.745	.128	.739	.428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용의자 추정이 필요하다	.724	.058	.703	.476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사건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811	.004	.149	.888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증거수집 및 탐문이 필요하다	.821	.017	.207	.882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사건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	.815	.052	.360	.827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효과적인 피의자 신문이 필요하다	.738	.092	.466	.716
요인명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사실적 수사 중요도	규범적 수사 중요도
고유값(eigen value)		6,328	3,540	1,247
분산 설명력(%)		39,550	22,123	7,796
누적분산비(%)		39,550	61,673	69,469
내적 신뢰도(Cronbach's α)		.884	.905	.908
요인평균 (표준편차)		3.233 (.810)	4.134 (.794)	4.633 (.627)

주: 주성분 분석 요인추출 및 Varimax 요인회전 방식에 의해서 도출된 결과임.

값은 .88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chi^2 = 3702.009(p=.000)$ 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6개 문항은 3개 요인으로 구분됐다. 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884, .905, .908로 높은 수준의 내적 신뢰도를 보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규범적 수사 중요도 5문항, 사실적 수사 중요도 4문항, 프로파일링 태도 7문항을 최종 선정했으며,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는 1개 문항을 사용했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은 규범적 수사 중요도, 사실적 수사 중요도,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및 활용 의도의 구성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 자체의 중요도 및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측정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가 없으므로 실무적 차원에서 구성개념에 대한 문항들을 직접 수집하였고, 모델 구성 전 측정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과 신뢰도를 사전에 확인한 후 경로 모델을 구성하는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측정모델과 구조모델을 동시에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평가되고 있다(Hair, 2006, p. 848). 측정 문항 선정 및 모형 구성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자료 분석 및 모형 검증을 위해서는 SPSS 23과 AMOS 20.0을 사용했다.

첫째, 모형 구성 전 측정 항목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어 단일 차원의 구성개념을 적절히 설명한다는 가정을 충족할 필요가 있으므로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에 따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델의 적합도와 타당성을 검증한 경로모

형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둘째,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변수들을 단일 항목 평균으로 합산⁷⁾, 경로모형을 구성하고, 연구모델 및 수정모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모델을 제안했다.

셋째, 최종모델에서 경로계수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사관들의 수사요소 중요도 인식이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및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에 대한 인과관계 경로 모델에서의 효과를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프로파일링 경험 및 미경험자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집단별 경로계수의 차이를 확인하는 다집단분석을 실시했다.

결 과

구성개념의 타당도 검증

구성개념별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다. 3개 구성개념에 대한 측정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 > 8.0$). 구성 신뢰도의 경우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사실적 수사 중요도, 규범적 수사 중요도가 각각 .865, .947, .820,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지수값은 .516,

7) 측정문항 합산 방식은 모형 적합도가 개선되는 장점이 있으나, 통계적 유의도를 과적합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을 통해 구성개념별 단일 차원성 검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모델의 인과관계 및 개별 측정문항의 내적 타당도에 있어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다(우종필, 2015).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결과

구성개념	측정 문항	표준화 요인 부하량	C.R (t)	구성 신뢰도	평균분산 추출 지수(AVE)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프로파일링은 검증된 과학이다	.888	10.885	.865	.516
	범죄분석을 통해 항상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776	10.191		
	범죄분석 요원들은 고도의 전문가 집단이다	.712	9.700		
	범죄분석은 과학수사 기법이다	.795	10.327		
	범죄분석 결과(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676	9.395		
	영화나 드라마 속 프로파일러는 범죄분석 요원과 비슷하다	.562	8.280		
	수사부서 경찰관들은 범죄분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556	-		
사실적 수사 중요도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범죄 동향 분석이 필요하다	.680	13.864	.947	.652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시스템 정보분석이 필요하다	.694	14.239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범죄자 특성 파악이 필요하다	.860	19.467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범행의 동기 파악이 필요하다	.864	19.622		
규범적 수사 중요도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용의자 추정이 필요하다	.845	-	.828	.601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사건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772	16.075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증거수집 및 탐문이 필요하다	.801	16.964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사건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	.906	19.901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효과적인 피의자 신문이 필요하다	.831	-		

표 4.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 및 상관관계 제공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사실적 수사 중요도	규범적 수사 중요도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		
사실적 수사 중요도	.304** (.092)	-	
규범적 수사 중요도	.170* (.029)	.711** (.506)	-

** $p < .05$, *** $p < .001$; () 안은 상관계수 제공값

.652, .601로 일반적 기준을 충족시킴으로 각 구성개념에 해당하는 항목들의 집중 타당성이 Hair(2006, pp. 776-778)가 제안한 기준에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또한,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3개 구성개념별 상관계

수 제공값들 모두 평균분산추출지수(AVE) 최저값인 .516보다 작아 프로파일링 태도, 분석 수사 중요도, 일반수사 중요도 모두가 단일 차원으로 확인됨으로써 측정모델에 사용될 구성개념 간 판별 타당성이 확인됐다⁸⁾.

경로모형 적합도 검증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규범적 수사 중요도, 사실적 수사 중요도 모두가 형성척도로 측정되어 각각의 값들을 평균으로 합산, 경로모형을 구성하였다. 최초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4.410(df=2, p=.001)$, GFI=.979, AGFI=.897, RMR=.086, RMESA=.135로 대체로 적합도 판단 기준을 충족하나, 모형 적합도 향상을 위해 수정지수 값을 고려 연구모형에서 ‘사실적 수사 중요도’에서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 간의 경로를 추가했다. 수정모형 적합도는 $\chi^2=.070(df=1, p=.798)$, GFI=.999, AGFI=.999, RMR=.001, RMESA=.000으로 모형 적합도 지수가 향상되어 최종모형으로 결정했다(표 5 참조).

가설 1 검증 결과 :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및 매개효과

최종 수정모형(그림 2)에서 경로관계를 살펴보면, 수사요소 중요도 중 ‘사실적 수사 중요도’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beta=.512, t=5.839, p<.001$) 및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beta=.199, t=3.834, p<.05$)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규범적 수사 중요도’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beta=-.205, t=-2.343, p<.001$).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는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로 나타났다($\beta=.472, t=8.921, p<.001$).

가설 검증을 위해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를 매개한 모형의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을 위해 95% 신뢰구간에서 5,000회의 편향조정 부트스트래핑(bias corrected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의 ‘규범적 수사 중요도’와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에 대한 간접 및 총효과는 $\beta=-.097(p<.05)$ 로 ‘사실적 수사 중요도’와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에 대한 간접 및 총효과는 각각 $\beta=.242(p<.01)$, $\beta=.441(p<.01)$ 로 95% 편향조정 신뢰구간(bias corrected confidence interval)의 하한값과 상한값의 범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존재한다. 즉,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가 ‘규범적 수사 중요도’ 및 ‘사실적 수사 중요도’와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 1-2, 1-3은 지지되었다(표 6 참조).

가설 2 검증 결과 : 프로파일링 경험 여부에 따른 다중집단 경로분석

범죄수사 과정에서 프로파일링 경험 집단(n=88)과 비경험 집단(n=252) 간의 경로관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과 같이 경험 집단과 비경험 집단의 단순 경로계수를 비교하면, 경험 집단에서는 ‘사실적 수사 중요도’만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에 대해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이나, 비경험 집단에서 ‘규범적 수사 중요도’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8)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및 평균분산추출 지수 값이 .5 이상인 경우와 구성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값이 .7 이상인 경우 집중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성개념 각각의 평균분산추출지수와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제곱을 비교, 평균분산추출지수 값이 상관관계의 제곱보다 큰 경우 구성개념 간 관별 타당성이 확보된다(이학식, 임지훈, 2017, pp. 39-41).

표 5.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경로모형 적합도 지수

	χ^2 (df)	p	GFI	AGFI	RMR	RMSEA	
						LO90	HI90
연구모형	14.410(2)	.000	.979	.897	.036	.135	
						.076	.205
수정모형	.070(1)	.798	.999	.999	.001	.000	
						.000	.092

표 6. 최종 경로모형의 직접, 간접, 총효과

직접효과	β	S.E	t		
규범적 수사 중요도 →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205	.111	-2.343*		
사실적 수사 중요도 →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512	.088	5.839***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 활용 의도	.472	.056	8.921***		
사실적 수사 중요도 → 활용 의도	.199	.056	3.834***		
간접효과	β	Boot S.E	Boot LLCI	Boot ULCI	
규범적 수사 중요도 →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 활용 의도	-.097*	.038	-.168	-.023	
사실적 수사 중요도 →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 활용 의도	.242**	.049	.151	.338	
총효과	β	Boot S.E	Boot LLCI	Boot ULCI	
규범적 수사 중요도 → 프로파일링 활용의도(직접+간접)	-.097*	.038	-.168	-.024	
분석적 수사 중요도 → 프로파일링 활용의도(직접+간접)	.441**	.061	.298	.539	

* $p < .05$, ** $p < .01$, *** $p < .001$, β : 표준화 계수, S.E: 표준오차

부적관계를 보이고 ‘사실적 수사 중요도’는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집단 모두에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는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에 정적인 관계를 보이거나 비경험 집단에서만 ‘사실적 수사 중요도’가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프로파일링 경험 집단은 전체 경로모형과는 다르게 사실적 수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지

닌 경우라도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를 매개하지 않는 경우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비경험 집단은 앞서 그림 2에 제시된 전체 모형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측정동일성 모형 검증에 따라 프로파일링 경험 집단과 비경험 집단의 경로계수 차이를 분석하면, 비제약모델과 경로계수 제약 모델 모두 모형 적합도는 높으나, χ^2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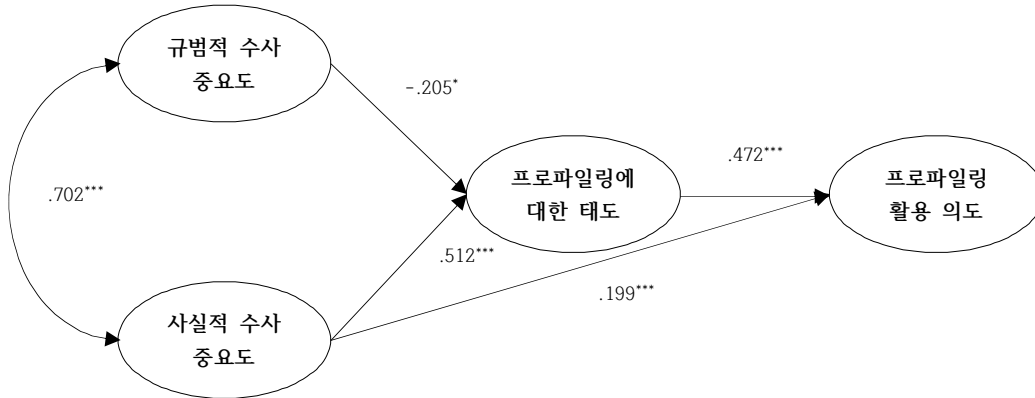


그림 2. 규범적·사실적 수사 중요도,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 간의 최종 수정모형

표 7. 프로파일링 경험 집단, 비경험 집단 간 최종 경로관계 비교

경로	경험자(n=88)			비경험자(n=252)		
	β	S.E	t	β	S.E	t
규범적 수사 중요도 →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0.330	0.228	-1.482	-0.213	0.154	-2.036*
사실적 수사 중요도 →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0.683	0.254	3.004**	0.491	0.100	4.753***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 활용 의도	0.565	0.092	5.793***	0.443	0.070	7.091***
사실적 수사 중요도 → 활용 의도	0.187	0.102	1.941	0.206	0.066	3.373***

* $p < .05$, ** $p < .01$, *** $p < .001$, β : 표준화 계수, S.E : 표준오차

표 8. 프로파일링 경험 집단, 비경험 집단 비교를 위한 측정동일성 모형 검증

	χ^2	df	GFI	CFI	RMSEA (LO90/HI90)	TLI	$\Delta\chi^2$	Sig.
비제약 모델	0.212	18	.999	1.000	0 (0/0.047)	1.031		
경로계수 제약 모델	3.474	14	.995	1.000	0 (0/0.050)	1.014	$\Delta\chi^2(4) = 3.262$	유의미하지 않음

량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아($\Delta\chi^2=3.262, df=4$), 집단 간 경로계수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8 참조).

9) Kline(2005)의 측정동일성 개념에 따르면 경로모

형에서 다중집단 간의 경로계수 차이의 경우 특정 경로를 제약한 모델과 비제약한 모델 간의 χ^2 변화량 차이를 고려하여야 집단 간 경로의 통계적 차이를 유의미하게 검증할 수 있다고 한다(우종필, 2012에서 재인용).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학적 지식과 방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수사기법 중 하나인 프로파일링에 대한 수사관의 태도와 활용 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수사 전문가이자, 범죄 수사를 주된 직무로 수행하는 실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사방식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라는 수사관들의 신념 요인과 프로파일링 기법의 활용 의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특히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를 매개 변인으로 가정하고 통합적 관계를 분석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요소 중요도,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문항 전체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법률적, 절차적 수사 내용과 관련된 규범적 수사 중요도, 사건의 사실관계 추정을 위한 사실적 수사 중요도,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등 3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사관들은 프로파일링 기법을 포함하는 사실적 수사방식을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법률적, 절차적 수사와 구분되는 별개의 수사 지원 형태로 인식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둘째, 수사요소 중 규범적 수사와 사실적 수사 중요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와 관계 방향성은 규범적 수사 중요도와 부적인 관계를, 사실적 수사 중요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여, 상반되는 관계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프로파일링과 유사한 사실적 수사 활동을 중요시할수록 프로파일링 기법 및 프로파일러 활동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증거수집 및 활용 등 법률적이고 절차적인 수사 활동을 중요시할수록 프로

파일링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규범적 수사의 영향과는 반대로 사실적 수사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수사관의 경우 프로파일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활용 의도 역시 높은 경향이 확인된 만큼 수사관들의 사실적 수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프로파일링 활성화를 위한 한 가지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규범적 수사방식을 강조하는 인식 하에서 프로파일링이라는 대안을 선택하기보다 규범적 수사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선택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식들이 발전해 왔다는 것도 프로파일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기 힘든 현실적인 이유가 된다. 프로파일러 이외에 경험 많은 선배, 관련 매뉴얼, 경찰 내 다양한 자료 시스템 등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스스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다양한 대안들이 존재하므로 프로파일러라는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대안 선택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는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여, 프로파일링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수록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요소 중요도에 대한 매개효과를 보였는데, 특히 사실적 수사 중요도의 경우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에 대한 직접효과가 나타나,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 형성과 무관하게 사건수사 과정에서 프로파일링을 활용할 의도와 정적 관계를 보였다. 반대로 규범적 수사 중요도 인식과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며,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가 매개하는 경우에도 부적 관계 강도의 감소는 미미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파일

링에 대한 태도가 약하거나 활용 경험이 없더라도 사실적 수사방식에 대한 경험 및 중요도 인식이 높을 경우 프로파일링과 같은 전문가 지원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넷째, 프로파일링 활용 경험 여부는 수사요소 중요도 인식, 프로파일링 태도, 활용 의도와 외의 관계를 구분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개별적인 분석에서 경험자들은 비경험자들에 비해 향후 프로파일링 활용 의도가 유의미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로 관계에서 구별되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경험의 양적·질적 차이, 프로파일링 지원 요청 시 능동적 태도 유무, 프로파일링 결과의 모호성 혹은 의사소통 문제 등 다양한 이유를 추정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프로파일링이 경험만으로 긍정적인 태도나 활용 의도를 증가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프로파일링 서비스 제공자로서 내외부 심리학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대중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효용성 인식 수준이 높고, 과학적 수사분석 활용이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일반적 사고와 배치되는 것으로,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협력하는 개별 수용자의 욕구 및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분석기법의 활용, 적절한 의사소통 활동 및 사후 지원 등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프로파일링의 활용 증진 방안에 적용해 본다면, 수사관의 프로파일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파일링의 정확성 평가 및 효과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자인 수사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 프로파일

링에 대한 수사관의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파일러의 차별화된 전문영역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수사가 법적 재구성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은 범죄, 예를 들어 미검거 상태의 연쇄범죄, 또는 이상 범죄의 경우 범죄자의 심리적·행동적 분석은 직접적으로 사건의 해결과 관계되어 있어 프로파일링 업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검거 연쇄범죄는 용의자 추정을 위해, 이상 범죄에서 고의 또는 정신질환(책임적격) 유무의 파악은 대상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사에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최근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의 맥락에서 경찰 수사의 결과에 범죄의 성립뿐만 아니라 양형과 관련된 사항들(동기, 상황, 재범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내용들은 범죄자, 피해자, 상황 등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프로파일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임이 분명하다(윤상연, 2020).

둘째, 수사관의 관점에서 프로파일링의 법적 가치를 인식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수사관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보고서의 증거능력 문제는 수사관의 범죄분석 요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긍정적인 사실은 최근 국내 판결에서 범죄분석 보고서의 내용이 판례에 인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신상화, 이동희, 2020). 물론 미국에서도 프로파일링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로파일링에 의한 판단이 성격증거(character evidence)나 유사사실증거(similar fact evidence) 등 편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과학적 지지기반이 약해 활용이 금지된 증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프로파일링 결과를 사회과학적 지식을 활용한 과학적 증거로 보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례도 있는 만큼(Delaware v. Pennell, 1991; North Carolina v. Wallace, 2000), 국내에서도 프로파일링의 형사절차적 의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셋째, 프로파일링에 대한 수사관들의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관들은 프로파일링 또는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파일링을 수사 또는 규범적 수사와는 다른 성격의 수사방식으로 인식하여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실적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태도라기보다 규범적 수사의 강조에 따른 반작용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가설검증 이외의 결과를 확인한 결과, 프로파일링에 대한 태도는 경찰경력이 많을수록 오히려 긍정적이었다(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5년미만 = 20년이상 30년 미만 ≤ 30년이상). 경찰관이 입직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수사관으로 배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관이 된 이후 비교적 초기에는 규범적 수사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지만, 수사경력이 쌓일수록 사건에 대한 사실적 이해의 중요성을 점차 강하게 느끼고, 원칙과 규범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수사관의 업무와 경력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구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가 확인되었다. 첫째, 수사 과정 또는 수사관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서 수사 활동과 관련된 심리학적 개

념 역시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할 때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웠다. 다행히 요인분석에 의해 수사관들의 인식을 포착하고 변인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지만, 가설 수립 단계에서 근거 부족이라는 한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수사관의 프로파일링 활용을 소비자의 선택 과정으로 간주하여 합리적 선택 이론을 적용하였으나 이 이외에도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의 판단과 그 준거에 대한 인지적인 과정을 적용하는 판단과 의사결정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수사관의 인식을 다루는 만큼 표집에 있어 모집단인 전체 수사관에 대한 대표성이 요구된다. 프로파일링 활용 가능성이 있는 일선의 형사과, 수사과,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의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면에서 조사 설계 단계에서는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비교적 짧은 기간 시행된 조사로 인해서 자발적인 응답자의 성별, 연령대, 지역 등 일반적인 인구통계적 구성은 실제 수사관 전체의 구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추후에는 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표집의 수를 보다 늘리고, 성별, 연령, 지역, 계급, 프로파일링 경험 등을 기준으로 표집 설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수사요소들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수사관의 주관적 신념 요인으로 가정하고, 프로파일링 태도 및 활용 의도와 관계를 검증했다. 그러나 이외에도 수사에 대한 내적 신념, 통제 요소에는 다양한 수사관의 심리특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프로파일러와 같은 외

부 전문가의 활용은 전형적인 수사기법 이외에도 최신 발전하고 있는 범죄데이터 분석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 다양한 지식에 대한 탐구 욕구 및 이를 성공적으로 수사 활동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프로파일링 경험 또한 조직 차원에서 수동적으로 경험한 경우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활용한 경우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경험 방식에 따라 프로파일링 태도와 향후 활용 의도는 미경험자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관계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사관들의 내적 특성과 경험의 방식을 영향요인으로 실제 행동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사용, 더 심층적이며 쌍방향적인 통합 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일용 (2019). 프로파일링 이론과 실제. 서울: 박영사.
- 나은영 (1994). 태도 및 태도변화 연구의 최근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8(2), 3-33.
- 김용화 (2002). 한국의 살인범 profiling 모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형원 (2019.10.2.). 프로파일러 설득에 심경 변화. "그림 그려가며 자백". YTN.
- 박노섭, 이동희, 이 윤, 장윤식 (2020). 범죄수사학. 서울: 경찰공제회.
- 박종구 (2011). 뉴미디어 채택에 관한 통합모델 IAM-NM (integrative adoption model of new media). 한국언론학보, 55(5), 448-479.
- 박지선, 최낙범 (2012).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식과 발전 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6), 413-423.
- 박현호, 오경석 (2010). 범죄 프로파일링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경찰 범죄분석요원 및 기존 수사관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9(2), 59-88.
- 서종환, 김경일 (2011). 성범죄자 군집유형분석과 프로파일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155-172.
- 신상화 (2009). 연쇄 강간범에 대한 지리적 프로파일링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4(2), 125-160.
- 신상화, 김지호 (2012). 성범죄 피해자 연령대에 따른 범죄 현장 행동 특성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107-126.
- 신상화, 이동희 (2020). 범죄자 프로파일링 유용성 인식 평가: 경찰관 대상 실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34(2), 129-161.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우종필 (2015). 구조방정식모델에서 다차원성 개념의 항목묶음 편향에 대한 연구. 경영학연구, 44(4), 1131-1147.
- 유재현, 박철 (2010).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연구에 대한 종합적 고찰.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9(2), 31-50.
- 이관희, 김지은, 문성준 (2018). 범죄수사입문. 경찰대학출판부.
- 이학식, 임지훈 (2017).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24. 서울: 집현재.

- 윤상연 (2020). 범죄분석요원 업무분석 및 효율화 방안. 치안정책연구소.
- 이동희, 손재영, 김재운 (2015). 경찰과 법. 경찰대학 출판부.
- 이진숙, 이주현, 최규환, 공은경, 김성혜, 이상경, 한수영, 신경아, 조남경, 박준희, 한상아, 이진아 (2020). 프로파일링 효용성의 수사실무적 평가: 프로파일링 수사기법 사용자들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0(3), 201-226.
- 정세종 (2014).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효용성 평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1), 686-694.
- 최규환 (2018).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증거 활용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32(3), 405-436.
- 최대호, 이주현, 이상경 (2018). 한국의 프로파일링. 과주: 궁리출판.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ndrews, D. A., Bonta, J., & Wormith, J. S. (2006). The recent past and near future of risk and/or need assessment. *Crime & delinquency*, 52(1), 7-27.
- Azj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rtol, C. R., & Bartol, A. M. (2018). *Introduction to forensic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 (5th edition)*. Sage Publications.
- Bateman, A. L., & Salfati, C. G. (2007). An examination of behavioral consistency using individual behaviors or groups of behaviors in serial homicide.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5(4), 527-544.
- Bennell, C., & Jones, N. J. (2005). Between a ROC and a hard place: A method for linking serial burglaries by modus operandi.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2(1), 23-41.
- Fazio, R. H., & Zanna, M. P. (1981). *Direct experience and attitude-behavior consistency*.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4, pp. 161-202). Academic Press.
- Fishbein, M., & Ajzen, I. (1977).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Philosophy and Rhetoric*, 10(2), 177-188.
- Fiske, S. T., & Taylor, S. E. (2010). *사회인지*. 서울: 박학사.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ition)*.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 Hanson, R. K., & Morton-Bourgon, K. E. (2005). The characteristics of persistent sexual offenders: a meta-analysis of recidivism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6), 1154-1163.
- Millar, M. G., & Tesser, A. (1986). Effects of affective and cognitive focus on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2), 270-276.
- Ochi, K. (2017). *범죄수사심리학*. 서울: 학지사.
- Pennington, N., & Hastie, R. (1992). Explaining the evidence: Tests of the Story Model for juror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2), 189-206.

- Pennington, N. & Hastie, R. (1993). Reasoning in explanation-based decision making. *Cognition*, 49(1), 123-163.
- Petherick, W. (2014). *Applied Crime Analysis: A Social Science Approach to Understanding Crime, Criminals, and Victims*. Elsevier: MA.
- Prislin, R., & Ouellette, J. (1996). When it is embedded, it is potent: Effects of general attitude embeddedness on formation of specific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8), 845-861.

1 차원고접수 : 2022. 02. 15.

심사통과접수 : 2022. 03. 21.

최종원고접수 : 2022. 03. 28.

The Effect of Investigators'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Investigative Elements on Their Intention to Use Profiling: Mediating Effect of Attitude toward Profiling

Sangwha Shi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Police Science Department

Sangyeon Yoo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Police Science Institute

Profiling is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application area of domestic criminal psychology,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profiler is firmly established as a profession. However, compared to the social awareness, the recognition and utilization within the police is not high. In this study, we tri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use profiling by identifying the perception of investigators who request and use profiling from a profiler when a violent incident occurs. To this e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factors considered by investigators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process and the attitude toward profiling on the intention to use profiling was verified through the path model. As a result of a survey of 340 police investigators, the investigator's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investigation elements was divided into two factors: the importance of normative investigative elements (evidence collection and legal judgment, etc.) and factual investigative elements (criminal analysis, criminal information system analysis, etc.). Among them, the importance of factual investigative element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it by mediating the attitude toward profiling.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importance of normative investigative elements, it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attitude toward profil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erception that investigators have about investigation, which is their main work area, plays a role in determining whether to request profiling as well as attitude towards profiling.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strategies necessary to activate the use of profiling were discussed.

Keywords : *profiling, investigator, investigative elements, importance perception, attitude, intention to use, path analysis*